21C 화학산업 발전을 위하여!

화학산업 노동쟁의의 타당성은?

석유화학을 비롯한 화학산업계가 노동분쟁에 휘말려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여천NCC가 호남에틸렌 및 대림산업을 이어 처음인 장기 파업에 휘말려 있는가 하면, 화학섬유기업 노동조합들도 구조조정(구조조정에 따르는 인력감축)을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여천에서는 여천NCC 노조가 20여일째 파업을 벌여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다운스트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이다. 전직원 1000여명 중 노조원 720명이 파업을 벌이는 바람에 비노조원 200여명이 5월16일부터 2조2교대로 3개의 NCC를 가동함으로써 사고 위험성까지 부각되고 있다.

여천NCC 파업일지

2000년12월21일	4차노사협상에서협상결렬
12월28일	노조쟁위행위찬반투표에서찬성 82.2%로가결
2001년 2월17일	노-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제시한조정안거부
8월 8일	노조집행부부사장실점거
5월 9일	불법점거및업무방해혐의로노조간부고소
5월16일	노조총파업돌입
5월29일	제1공장가동률 75%로낮추고3개소형공장조업중단
6월 1일	노조, 제2공장조정실점거. 회사, 경찰에공권력투입요청

석유화학 공장 특성상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평소 4조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던 근무체제를 1/3이 안되는 숫자가 2조2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니 안전사고가 터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해야 할 판이다. 5월28일부터 제1NCC 가동률을 20-30% 낮추고 BTX 및 SM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하나 200여명이 나프타 크래커 3개를 가동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었을 것이다.

200여명으로 3개 크래커를 무리없이 가동할 수 있다면 700여명을 감원해도 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도 있겠으나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다만, 200여명이 보름 이상을 거의 정상적으로 가동했다면 석유화학기업들이 평소 생각한대로 200-300명의 감원요인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여천NCC 노조가 강성 파업을 벌이는 것은 회사측이 성과급 지급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0년 단체협상에서 성과급 800% 지급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웠으나 거절당했고, 2001년 들어서는 최소 290%를 요구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사실은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와 한화석유화학이 자율빅딜을 실시하면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던 대림산업과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던 한화석유화학 노동자 사이의 어울리기 어려운 직업문화 차이가 컸고, 크래커 통합으로 여유인력이 생겨 감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반작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내 석유화학공장들은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건설돼 정기보수공사를 직접 시행하다보니 많은 인력이 필요했으나 1987년 이후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많은 인력을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지경이다. 그래서 1990년대 초부터 공무부문 인력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IMF가 터져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을 때도 공장 여유인력을 감축하지 못했다.

석유화학기업들의 매출액 중 인건비 비중은 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과 비슷한 3%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8%를 넘어 도저히 회사를 경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순이익이 매출액의 3%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건비 비중이 5%p 상승했으니 감내하기 어려울 것은 불을 보 듯 훤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회사의 감원 필요성과 노동조합의 기득권 지키기가 맞물려 노사분쟁에 휘말려 있기는 화학섬유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효성을 비롯 고합, 태광산업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거나 노동분쟁중이고, 자칫하면 다른 화학섬유기업 노조에까지 파급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화학섬유의 노동쟁의는 공급과잉과 가격급락에 이은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라 공장을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거나 설비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노-사간 대립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화학섬유산업의 경쟁력이 바닥에 다다른 것은 사실이고, 현 상태로서는 어떠한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설비를 폐쇄하거나 축소 가동하고, 일부를 해외에 이전하는 것은 경영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결코 노동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

당할 것이다.

석유화학이나화학섬유모두채산성이없는사업이라는점에서노-사의허심탄회한대화와양보가필요한시점이다.

<화학저널 2001/6/11>